

# 성남FC 이시영, 스승의 날 “전주대 감독님께 감사해”

## 축구부 후원금 1000만원 기부

성남 FC 이시영 선수(포지션: DF)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전주대(총장 이호인) 축구부 후원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9일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 이 선수는 구단의 경기 훈련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 선수의 아버지(이호찬 남)와 어머니(전혜경 남)가 대신 참석하여 후원금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 선수의 어머니 전혜경 남(53)은 “어렸을 적 가족이 반대했던 축구를 하면서도 이렇게 반듯하게 성장한 것은 전주대와 정진혁 감독님 덕분이다.”라며 소회를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시영 선수는 2017년 U-리그 전 경기를 수비수로 출전하며 전주대를 U-리그 권역 우승과 U-리그 왕중왕전 준우승으로 이끌며 경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 원동력에는 슬럼프에 빠진 이 선수를 응원하며 독려했던 정진혁 감독과 전주대 축구부원들이 있었다. 이런 고마움을 전하고자 지난 1월 1일 성남 FC로 입단하면서 받은 계약금 일부를 전주대학교 축구부 후원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시영 선수는 “제가 이렇게 성남 FC에 입단하게 된 것은 저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감독님과

팀원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팀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며 훈련지에서 축구부 후원금을 전하는 동기를 밝혔다.

그동안 전주대학교 축구부는 선후배가 서로 아끼며 땀겨웠다. 2006년 권순대 선수(가시마 엔트러스 소속)부터 시작해서 2012년 구자철 선수(FC 아우크 스푸르크 소속)가 후배들을 위해서 축구부 후원금을 냈다. 이런 선배들의 도움 덕분에 이시영 선수도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이 선수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전주대 축구부 졸업생 90여 명이 기부한 금액은 3억 원에 달한다.

이시영 선수는 “감독님을 비롯해 코치님, 축구부 선후배들께 배우고 지원받은 것이 많은데,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축구부원들이 합동해 훈련하는데 좀 더 맛있는 음식 먹으며 훈련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소중한 곳에 후원금이 쓰이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시영 선수는 2017년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경기전에서 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201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대표로 선발되어 전 경기 출전했다. 올해 초 성남 FC로 선발되어 빠른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신예 선수다.



/기동취재반

성남FC 이시영 선수

## 순창경찰, 실종예방지침 운영협의회 개최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 다가오는 행락철을 대비,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운영 협의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협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유익이 예상되는 지역 축제장(정류 축제장) 및 유원지(강천산 국립공원) 등 코드아담 시설에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등 실종예방지침 운영 내실화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행사 전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미아보호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아가 발생했을 시 신속히 보호자를 찾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들을 순회 방문하며 지문·사진 등을 등록해놓는 지문 등 사전등록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 김제경찰서, '의무경찰 힐링의날' 행사 개최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 112타격대 의무경찰과 의경어머니회 회원 등 30여명은 최근 함께 하는 '의무경찰 힐링의 날' 행사를 갖고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의경어머니회(회장 박옥진)에서 의경들의 군복무 중 애로사항과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식사를 준비, 노고를 위로하고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대원들은 이에 화답,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를 한 분 한 분 케네이션을 가슴에 달아 드리고 장미꽃을 선물하는 등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지원 기금 마련 공동바자회 개최

전주지역자활센터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사회복지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착한 소비' 공동 바자회를 열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로 했다. 전주지역자활센터는 11일 평화동 알렌시아에딩홀에서 우리모두사회적협동조합과 전주청소녀문화의집, 화산종합사회복지관, 전주탁틴내일 등과 함께 착한 소비 공동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마을기업, 전북우수농식품회 등 지역사회 업체 및 기업, 지역주민의 기부 물품(각종의류, 생활용품, 먹거리, 농산물, 잡화 등)이 저렴하게 판매됐다.

특히, 전주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자활상품과 사회적기업 상품이 풍성하게 준비돼 바자회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바자회에는 총 1,000여명이 방문해 500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구입했으며, 수많은 개인봉사자들이 식사 등 봉사활동으로 바자회를 풍성하게 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자활사업과 청소년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위한 '다정다감 문화교실' 운영

전주시가 지역 금융기관과 손을 맞잡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금융경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 이하 센터)와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1일 전북은행 본점 연수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금융경제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다(다)정다(다)감 문화교실'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 금융과 관련된 정보습득 기회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금융경제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의 활력소 제공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금융경제교육(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정서지원을 위한 플라워박스 만들기를 함께 진행했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정다감 문화교실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 임실읍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전개

임실군 임실읍에서는 11일 임실시장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임실읍 직원들은 시장 및 다중집합시설에서 라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전주 제일로타리클럽 진북동 1인 독거세대 과일 전달

지난 10일 국제로타리3670지구 전주제일로타리클럽(회장 유강수) 회원들은 진북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독거세대에게 정성 가득한 과일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이웃사랑 실천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홀로 생활하는 독거 청장년·노인 등 소외가장들에게 마음을 모아 따뜻함을 전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유강수 회장은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제철과일을 전달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많은 봉사를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